
정보철학 관점에서 본 최한기의 기학(氣學)*

김선희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정보철학의 대두와 참조점으로서의 동아시아
- III. 정보철학 관점에서 바라본 기(氣)
- IV. 인포스피어와 최한기의 기학(氣學)
- V. 정보 윤리와 기학의 제안
- VI. 나가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부상한 '정보철학'과 그 관점에서 도출된 세계의 윤리적 변화를 동아시아의 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양자의 성긴 연결을 통해 어떤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이 논문은 전통적인 기 개념을 당대 서구 과학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던 19세기 조선 유학자 최한기의 '기학(氣學)'을 정보철학과 정보 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최한기는 전통적인 기의 의미망을 넘어 인식과 경험, 기계의 원리와 작동, 사회와 우주의 운용에까지 기라는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최한기의 체계에서 만물은 각자 평등한 정보존재자로서 패턴을 교환하고 상호 작용하며 최종적으로는 상호적 책임으로 무한히 연계된다.

주제어: 정보철학, 정보 윤리, 루치아노 플로리디, 인포스피어, 인포그, 최한기, 기(氣), 기학(氣學), 신기(神氣)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 A2A03045237)

1. 들어가며

21세기의 인류는 새로운 학술적-철학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생물학·의학·뇌과학·신경생리학의 차원에 연접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별도의 층위에서 전개되는 인공 지능과 ICT에 기반한 디지털 네트워킹이 인간 존재-생활의 기본-필수적 조건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 기술적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적 전환은 인간에게 그 자연적 속성들을 초과하여 부여되어 있던 ‘주체’라는 과중한 무게를 떨구었다 해도 여전히 ‘인간’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던 ‘행위자’라는 개념과 범주에 이론적 중심과 초점을 한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 기계 등 비인간 존재자뿐 아니라 점차 영역과 기능이 확산되고 있는 AI와 사물 인터넷 등 과거에는 ‘존재’조차 아니었던, 이제는 현실-가상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낯선 단위와 작용들이 여전히 신체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학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시도 가운데 철학자들은 사변적 인식 주체에서 신체와 세계로 확대된 인간, 인식하고 행위하는 개별 인간을 넘어 단일한 초점이나 경계로 수렴되지 않는 사건과 현상을 검토할 새로운 관점이자 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의 경로 혹은 관점이 바로 ‘정보(Information)’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루치아노 플로리디(Luciano Floridi)는 기술적 환경 변화와 미시적 수준까지 인간을 바꾸는 디지털 기술의 환경과 실천을 포괄할 새로운 존재론과 인식론, 윤리학을 ‘정보’라는 일종의 기체(基體)와 현상을 통해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어떤 특정한 사실, 주제 또는 사건에 관해 전달되는 지식(Knowledge communicated concerning some particular fact, subject, or event)”¹⁾으로 요약될

1)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dictionary/information_n?tab=meaning_and_use#416073)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토대적인 차원에서 정보는 감지되거나 포착될 수 있는 것을 해석하고 추상화하며 나아가 패턴화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 결과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무질서하거나 무작위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과정과 형식, 그 해석 과정에서 도출된 추상적 기호, 신호, 음성, 전자 데이터, 전류 등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보라 부른다. 정보는 그 자체로 지식이나 지식 체계가 아니라 해석과 추상화 과정을 거쳐 산출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론의 차원에서 정보는 합치되거나 통일된 표준적 해석이나 규약으로 제안되기 어렵다. 통합적이거나 표준적인 개념이 구성되기에는 정보라는 개념, 현상, 실천이 만드는 자장이 연구 영역이나 관점에 따라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합치될 수 없는 다층성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이후 인류는 정보를 새로운 ‘메타 철학’이자 보편학의 인상으로 대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와 소통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즉 ICT가 비약적으로 인간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ICT는 인간 외부의 환경과 조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정보체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반의 정보기술은 몸을 의학·기계 공학·생명공학·나노 기술·인공지능·지공학기술 등이 상호 연계된 융합 기술이라는 장(場) 안에서 선택되고, 조직되고, 삽입되고, 교체되고, 재구성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생체 정보를 추출하고 조작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더 복잡한 정보체가 되어간다. 이제 인체는 미시적인 조직과 기능까지 관찰되고 수치화되고 기록되고 있다. 미시적 기술은 인간을 정보 체계로 환원하여 신체를 넘어선 더 거대한 장으로 개방한다. 이제 인간은 빅데이터를 내장한 하드웨어가 되어 가고 하드웨어 간의 연결이 세계를 구성한다. 제레미 리프킨이 제안했듯, 이미 생명은 기계 장치가 아니라 정보로 전환되어가고 있다.²⁾ 구조는 기능이 되고, 기능은 정보의 흐름으로 파악

, 2023년 8월 27일 접속)

2) 제레미 리프킨, 전영백·전병기 역,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380~384쪽.

되며 완전성으로서의 종(種) 개념은 점차 소실되어 간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차원과 요소들, 자연-생명, 사회-문화, 기술-기계와 같은 존재의 조건과 양식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심축 위에서 재조합, 재집합, 재맥락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조건을 철학의 관점에서 어떤 방법과 이론으로 검사할 것인가? 어떻게 철학의 지평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시 쓰며, 어떻게 이를 통해 인간에게 집중되지 않지만 여전히 윤리적 기준과 선택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제안이 가능할 것인가?

II. 정보철학의 대두와 참조점으로서의 동아시아

플로리디는 기술적 환경과 인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중심을 ‘정보’라고 말하며 이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제4차 혁명 즉 정보혁명이라 부른다. 새로운 철학 분과로서의 정보철학은 아직 형성 중에 있다. 주지하듯 튜링(A. Turing), 섀넌(C. Shannon), 위너(N. Wiener), 란다우어(R. Landauer) 등 정보를 이론적으로 다룬 학자들은 정보라는 개념을 수학적, 공학적으로 설명할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곧바로 정보에 관한 ‘철학’적 맥락과 조건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정보철학자가 아니라 정보 이론가들로서 정보를 수학, 물리학, 공학의 문법과 언어로 다루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플로리디는 정보를 독립적인 이론의 단위로 구축한 정보 이론들을 전사(前史)로 두고 정보철학을 제일 철학(Philosophia Prima)으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³⁾ 그는 “이 분야는 단순한 계산보다는 정보의 철학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은 단순한 지각이 아

3) L. Floridi. “What is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Metaphilosophy* 33(1/2), 2002, p.141.

닌 지식의 철학이라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⁴⁾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보철학(PI)이란 “(a) 정보의 동역학, 활용, 과학을 포함한 정보의 개념적 본질과 기본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면서 (b)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정보의 이론적-계산적 방법론의 정교화와 응용에 관련된 철학 분야”로 정의된다.⁵⁾ 이러한 제안은 철학을 통한 정보의 해명과 이론적 제안을 넘어 정보를 통한 철학의 재구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플로리디는 자신의 저서들에서 위의 정의에 개입된 개념과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그 조건들을 검토하지만 이러한 시도만으로 새로운 메타 이론으로서 ‘정보철학’의 유효한 정의와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보의 단일 개념이 이 일반 분야의 수많은 가능한 응용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⁶⁾는 신중한 통찰은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개념에 대해 확정적이고 표준적인 해석을 마련하기 어렵고 그 조건을 승인하는 이론적 시도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지향점을 공유하는 한에서 다른 제안들, 문법과 용어들이 다른 새로운 제안들이 그 지향성 안에서 다채롭게 해석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생명, 기술과 기계, 인간과 사회, 언어와 기호 등 모든 영역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론적 기초이면서 동시에 인식론적 기초로서 정보는 존재했던, 존재하는, 존재할 세계의 모든 것이다. 파악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그에 의해 파악되는 인간 외부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단위화하여 배열·배치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기록 행위, 계산-배치-전달 등의 세부적 요소에 개입하거나 이를 담당하는 기술-기계는 더 이상 변별적 경계 안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 환경을 신체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디지털 원주민-가 점차 더 증가하는 상

4) 위의 책, p.138.

5) 위의 책, p.138.

6) Shannon, C.E., Sloane N.J.A. and Wyner A.D. (ed.). “The Lattice Theory of Information” *Claude E.Shannon: Collected Papers*, 1993, Wiley-IEEE Press, p.180.

황에서 모델링을 통해 정보는 인식의 결과가 아니라 인식의 논리와 구조를 결정하는 상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정보에 관한 철학이 새로운 메타이론-보편학의 지위로 부상하는 것이다. '세계는 발견되거나 창안된 것이 아니라 이를 경험하는 이식 주체에 의해 고안된(designed) 것'⁷⁾이라는 관점은 이제 철학자의 정의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보편적인 경험이 되어 가고 있다.

플로리디에 따르면 “철학자들은 정보의 세계와 정보 사회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지적 도전을 다루기 시작했다. 정보철학은 이미 존재하던 주제들을 종합하여 철학적 시나리오를 재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고투하고 있지만 아직 전통적인 철학의 교수 요목에 자리 잡지 못한 철학적 탐구의 새로운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전통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철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⁸⁾

정보철학이 제일 철학으로서 메타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보 자체가 물질과 비물질의 전통적인 경계면 혹은 접촉면에 형성된-걸쳐있는 중첩적이고 매개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전통적인 존재론과 인식론의 경계는 물론, 인식론과 윤리학, 윤리학과 생물학 등의 학제들의 접촉면에서 유동하며 전통적인 분과적 구획과 실천들을 통합하거나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론에서 멀거나 무관해 보이지만 경계의 통섭과 경계면의 통합에 동아시아의 전근대 철학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사유 역시 동아시아적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토대로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유효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제안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보철학의 구상과 제안을 인공 지능과 같은 비인간 존재, 사물 존재, 디지털 연결망 등 우리의 현실에 들어와 있는 낯선 존재들을

7) L. Floridi,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78.

8) L. Floridi (2002), 앞의 책, p.140.

보편적 차원에서 포괄하려는 새로운 관점이자 이론으로 간주하고, 이 제안을 전근대 동아시아 철학이라는 낯선 외곽에서 검토함으로써 모종의 참조점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이다. ICT라는 기반을 넘어 '정보'의 관점에서 의미론과 윤리학을 제안해야 한다는 현대적 과제 앞에서 동아시아는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 사실상 동아시아 철학이 이러한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어떤 자연적인 객체-세계도, 문화가 없는 건전한 객관성들을 통해 그리하여 보편적인 과학을 통해 은유가 없고 설화가 없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⁹⁾는 도나 해러웨이의 말이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과학적 성과도 문화적 토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표백된 진리의 형태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동아시아의 세계관과 철학 역시 현재의 문제를 전망하는 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정보철학의 대두와 연결되어 있는 근원적인 질문에 접근하는 하나의 경로로, 서구와는 물론 현대의 최첨단 기술과도 멀리 떨어져 있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관념과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던 19세기 유학자 최한기의 기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최한기가 제안하는 보편학, 즉 기의 실증성과 포괄성을 학술 구조 안에 담고자 했던 기학(氣學)의 구조와 세부를 매개 삼아 정보철학이 제안하는 새로운 윤리학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물론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먼 외곽의 사유를 참조하려는 이 시도는 지나치게 성기거나 건강부회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정보철학이 제일철학으로 성립될 수 있다면 즉 모든 사물과 현상의 모든 제일 원인에 대한 탐구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낯선 타자의 사유 역시 소통할 포괄성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이론과 개념에 대한 세부적 차원의 이론적 연결은 또 다른 과제라는 점에서 이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 이 논문에서는 정보철학의 기본적인 제안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 기 담론의 공명 가능성을 선행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9) 도나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겹손한_목격자』, 갈무리, 2007, 416~417쪽.

III. 정보철학 관점에서 바라본 기(氣)

정보철학이 하나의 메타 이론으로 성립할 수 있다면 이는 개별적인 철학적 시도들을 구획하고 재배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론과 개념을 검토할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정보 이론-철학이 수학과 공학 등 현대 과학의 이론을 토대로 한다는 점, 외부에서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독자적 문법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부의 다른 전통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동아시아 철학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사태-현상의 이론적 해석자가 아니라 해석되는 자원-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서구 혹은 현대 이론에 포착된 동아시아 사유는 관찰되는 (비)체계¹⁰⁾에 가깝다. 동아시아 철학이 외부의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상-자원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 중 하나로 고대부터 이어져온 동아시아인들의 고유한 존재론적 관념 중 하나인 기(氣)를 제안할 수 있다.

기란 무엇인가? 이는 동아시아 철학의 전통적인 질문 혹은 논제라기 보다는 현대 연구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논제라고 할 수 있다.¹¹⁾ 흥미롭게도 동아시아 담론에는 ‘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의적 서술이 많지 않다. 본래 정의란 더 많이 알려진 것으로 덜 알려진 것을, 더 명료한 것으로 덜 명료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왜 동아시아 담론에 ‘기’에 대한 정의적 설명이 발달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인간뿐 아니라 만물의 근저이자 원리이자 그 현실화였던 기는 개념적

10) 여기서 비체계적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철학에 체계가 없다는 일반적 인상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철학을 자원화하려는 시도들이 대체로 본래의 체계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무시하면서 개별적인 맥락-이론-장면만을 분리해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기란 무엇인가?’는 현대 연구자들이 채택한 책 제목이다. 다음이 그러한 예들이다. 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역, 『氣란 무엇인가』, 정신세계사, 1989; 이종란, 『기란 무엇인가』, 새문사, 2017.

분석이 필요없는, 다시 말해 다른 개념을 동원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는 세계의 구성 원리이자 물질적 구성 성분이었으며 생명이자 운동성이자 변화의 토대였다. 주지하듯 동아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존재론적 개념인 기를 통해 세계와 인간, 생명과 운동, 사유와 도덕적 실천을 설명해 왔다. 이와 동시에 기는 세계의 인식론적 단위이기도 했다. 기라는 존재론적 단위는 세계의 근원을 묻는 질문의 대상에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고 감당할 것인지를 묻는 인식론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의 대상에 가깝다. 고대부터 동아시아인들은 대체로 주체 또는 행위자와 그를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아는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어떻게 행위하고 실천하는가에 집중했다. 그것은 아마도 아는 주체와 알아야 할 대상이 본래 같은 근원-즉 동일한 형이상학적 원리(理) 혹은 자연학적 토대(氣)-에서 출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인간이 우주와 연동되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본성의 차원에서 인간 자신의 본질을 미루어 거시 세계를 추상화하고 다시 동일한 원리를 주변 세계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대상에 적용했다.

자연 세계는 매우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현상과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각각은 동일한 원리가 무한히 확장되고 변용된 결과일 뿐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증명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인들은 서로 다른 계열의 사건을 연결하고 확장하며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수학적 공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이론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동일한 패턴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현상도 나름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기는 본래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 양적으로 측정되어 표준화되지 않았다. 물론 우리 일상어 안에도 ‘기온(氣溫)’, ‘기압(氣壓)’ 등 물질적 현상 대한 수학적 측정을 바탕으로 한 단위로 쓰이는 기의 확장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근대 이후에 등장한 번역어들이다. 서양 철학과 자연학을 중국에 이식하려 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동아시아 자연학의 근본적 개념이자 단위인 오행(五行)을 서양 철학의 기본 단위인 사원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氣)’ 개념을 사원소 중 하나인 공기(air)로 바꾸고자 했다. 이후 기는 에테르 등의 물질 개념의 번역어로 채택되는 등 점차 근대 과학에 연접하게 되었고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연 과학적 개념의 번역어로 채택되면서 일상화되었다. ‘기’라는 개념이 활용된 과학적 개념은 모두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따라 20세기 이후 형성된 것들이다.

신 없이 세계를 설명하던 동아시아 세계관 및 철학과 대면해야 했던 예수회원들은 만물의 원리로서의 기의 역할을 최대한 낮추어 질료화하고자 했다. 질료를 철저히 수동적으로 보는 서구에서 생명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인간의 감정 등 인격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의 의미는 인격적 신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개별적인 현상들을 계측하고 계량하는 분과 지식이 일반화되자 이제 기는 알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인간-자연현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이탈하게 되었다.

특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는 다양한 범주에서 구체적인 의미와 역량을 가진 개별적 의미로 바뀔 수 있다. 후한(後漢) 시대에 만들어진 중국 최초의 자전(字典)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기는 구름의 형상에서 유비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로부터 의미가 확장되어 고대 중국의 여러 경전에서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인 기라는 의미에서 원기(元氣)로, 만물을 유동하는 가장 미세한 물질이자 생명력으로서 정기(精氣)로, 생명과 순환의 원리라는 의미에서 신기(神氣)로 불렸다. 기의 파생어들은 기의 파생물이거나 부분이라기보다는 상황과 국면에 따라 붙여진 계기적인 명칭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다시 시작된다. 정보철학의 관점에서 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기와의 비교는 정보철학의 문맥에 어떤 유효한 철학적 교훈이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선 확인할 것은 동아시아에 ‘information’에 대응하는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의(意)나 상(象), 지(旨)

등 정보의 내용으로서 메시지를 의미하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명확하게 “한 곳에서 선택된 메시지가 다른 곳에서 정확하게, 또는 대략적으로 재현”¹²⁾되는 것이며 “가능한 메시지들의 집합에서 선택하는 것”¹³⁾이라는 새년 식의 정보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기는 어렵다. 한편 동아시아인들도 자연 현상이나 물질의 질서 또는 패턴을 일정한 단위로 잘라 측정해 왔지만 이를 일정한 양적 단위로 전환하고 그 전송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은 발달하지 않았다.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수학-공학적으로 정보를 다루었던 새년 식의 정보 관념은 사실상 동아시아적 사유에 연결될 여지가 적다. 그보다는 차라리 “정보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변화, 계에 형태 변화를 산출하는 작용이다. 정보는 형태변형을 촉발하는 행위와 수용 작용을 벗어나서 정의될 수 없다.”¹⁴⁾는 시몽동의 정의가 동아시아적 입장에서는 좀 더 유용해 보인다. 동아시아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동일한 단위-비트로 전송되는 디지털적 ‘정보’의 통신 과정을 모델화할 개념-이론은 없지만 끝없이 유동하며 소통하는 존재의 패턴과 그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가 곧 정보는 아니지만 기의 패턴이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에는 물질·사물·현상이자 그 사물의 질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는 물질·사물·현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이자 작용이며 그 물질적 변화를 포괄하기 때문에 ‘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물의 변화’이자 ‘계에 형태 변화를 산출하는 작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12) 세자르 히달고, 박병철 역, 『정보의 진화』, 문화동네, 2018, 17쪽.

13) 이정민, 「정보의 개념, 새년과 그 이후」, 『양자·정보·생명』, 한울아카데미, 2015, 240쪽.

14) Simondon, “L’amplification dans les processus d’information” *Communication et Information*, 2010, *Les Éditions de La Transparence*, p.159., 김재희, 「시몽동의 정보철학: 사이버네틱스를 넘어서」, 『철학연구』 130권, 철학연구회, 199쪽 재인용. 김재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정보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계산되고 제어되는 신호나 정확한 전송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계 전체의 유의미한 변화를 개체 발생(구조 생성)으로 표현하는 사건적 작용이며, 계의 항상성 유지보다는 형태변화나 새로운 계의 발생을 야기하는 존재론적 과정의 다른 이름이다.” (김재희, 앞의 논문, 195쪽)

런 맥락에서 동아시아에서 정보와 가장 가까운 개념은 다시 말해 모든 국면을 통틀어 관찰 또는 변별가능한 대상 즉 상태·현상·사건·존재·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 개념은 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의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물질부터 자연적 현상과 기제, 생명과 그 반응, 인지, 판단, 추론과 감정, 기제와 그 구조, 기능, 작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기로 설명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는 가장 미세하거나 세부적인 단위 및 그 현상까지 쪼개어 개념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개별적 수준을 포괄하는 무한한 보편성을 가진 원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파생형을 가진 기의 이름들이 결과적으로 기의 패턴을 이루며 이 패턴들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경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면과 계기에 따라 기가 다른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인식의 차원에서 기가 특정한 패턴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만물에 모두 편재하되 개체와 현상에 따라 다르게 내재되어 있으며 인식론적 추상화의 과정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는 일종의 정보의 패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다시 말해 기 자체가 곧 정보는 아니지만 기의 존재와 활동은 일종의 패턴으로 변별되며 무엇보다 추상화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기가 여러 맥락에 위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의 패턴은 인간에게 알려지거나 혹은 구성되는 정보의 형태에 가깝다.

정보 이론의 발전에 따라 생명 역시 정보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철학은 정보의 포괄적 범위에 생명과 그 현상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기 역시 단순한 질로나 변별적으로 식별가능한 현상 또는 존재에 한정되지 않으며 생명과 신체성에도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기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동일한 근원이라는 점에서 정보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주체와 대상을 통합적·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론적 틀이다.

정보철학이 “정보 패턴이라는 공통적 속성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존재

들의 연속성과 유사성에 주목하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을 정보적 존재자로 간주함으로써, 정보철학은 자연과 인공, 생명과 비생명, 인간과 기계, 정신과 신체, 인지와 비인지 등 이분법적 경계를 넘는 새로운 존재론적 패러다임을 제시¹⁵⁾하려는 것이라면 이원적 분리 없이도 기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던 동아시아적 사유에서 이런 시도가 낯설지 않다. 비록 수학적 계산에 기반한 모델링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지향성 수준의 문제의식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정보철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변별적으로 존재하는 뉴턴적 존재가 아니라 정보 환경과 상호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로서, 기술적 대상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인간 행위자들과 공진화하는 존재”¹⁶⁾라면 그만큼 존재자들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는 개념은 드물다. 단독자 개인이 이성적 판단과 그에 따라 구성된 규칙에 따라 규범적인 차원에서 호혜적인 연결성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달리 기의 차원에서 개별 존재자는 그것이 속한 세계 또는 장과 동일한 구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 연결은 본질적인 조건이자 본질이 된다. 기의 세계는 이미 패턴화 자체에서 가치가 발생하는 장이다. 외부에서 윤리적 조건을 명령하지 않고 가치를 주입하지 않는다. 기의 운동성 자체가 모종의 질서를 이루는데 이 질서는 개체들이 참여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안정성과 변화에 부여되어 있다.

정보철학에서 정보는 파생된 객체나 해석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 존재자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정보 덩어리라면 기의 철학에서 기는 인간이 파악하는 외부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존재자들이자 그로부터 추상화된 신호와 기호들의 패턴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기는 그 자체로 정보가 아니지만 기가 드

15) 송은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교육: 정보철학과 정보 윤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2)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76쪽.

16) Floridi, L..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14.

러내는 무수한 패턴들과 양상들이 곧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는 작게 자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물질에 한정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처럼 음과 양의 조합과 구성에 의해 패턴화되고 그리하여 무질서와 질서 사이를 오고가는 정보의 형태를 띤다. 그러니까 기는 이미 비트이면서 존재했던 것이다. 결국 기는 물질이자 생명이자 신호이자 그 모든 것들의 패턴이다.

범주적인 차이, 수학적 계산 가능성 여부, 이론의 구조와 세부 등 다양한 맥락에서 정보 개념과 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모종의 지향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성긴 연결은 정보철학의 설명력과 포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V. 인포스피어와 최한기의 기학(氣學)

이 성긴 연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전근대 동아시아 학자가 있다. 한국철학사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일, 19세기 학자 혜강 최한기(惠岡 崔漢綺, 1803~1877)다. 최한기는 조선의 상업 특구였던 개성(開城)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서울 지역에서 생활하며 평생 독서와 저술에만 몰두한 독특한 재야의 학자였다. 가문과 사승(師承) 관계에 따라 복잡한 학맥이 작동하고 있던 19세기 조선의 지식장 안에서 특정한 학맥에 속해 있지 않았던 최한기는 비교적 자유롭게 독자적인 학문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의 차별성은 단순히 특정 학맥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넘어 당대 조선 유학자들과는 다른 지적 자원을 통해 독자적인 학문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최한기는 당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던 새로운 학술과 서적들을 과감하게 수용했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저술에 활용한다. 최한기가 특히 몰두했던 지적 자원은 당시 중국에서 유통되던 서학서(西學書) 즉 기독교 전파를 위해 16세기 이후 중국에 들어와 당대 서양 철학과 자연학, 수학 등을 중국어로 번역했

던 서양 선교사들의 번역서들이었다. 최한기는 당시 그가 접할 수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서학서를 백방으로 구해 읽고 자신의 관점에서 깊이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 유학의 저술 형식과 계보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저술을 내놓았다.¹⁷⁾

당시 최한기는 이미 동양 전교의 주도권을 잡은 개신교의 활발한 중국 내 활동에 힘입어 상당히 세분화된 분야까지 새로운 과학적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최한기는 이 책들을 자신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유학의 가치와 이념을 월경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서양 과학을 결합할 수 있었다.¹⁸⁾ 동시대 다른 유학자들과 달리 서양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최한기는 서양의 분과 학문과 실험을 통해 ‘기’를 실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최근 기(氣)의 형(形)이 모든 기계의 시험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고, 기의 신(神)이 도주(陶鑄)의 운화(運化)로 창달되었다. 질(質)에 형(形)이 있으며, 신(神)이란 어는 한 사람이 창시한 것이 아니며 천하에서 현명하고 해박한 자들이 함께 밝혀낸 것으로, (이로 인해) 체용이 겸비되고 만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¹⁹⁾

이를 바탕으로 최한기는 단순히 기를 중심에 둔다는 의미를 넘어 기를 보편학의 차원에서 원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분과 학문들로 확장하려는 일종의 보편학으로서 ‘기학(氣學)’을 제안한다. 최한기가 제한하는 ‘기학’은 단순히 이기론에서 기의 차원을 강조하는 ‘기의 학’이 아니다. 최한

17) 예를 들어 영국의 선교 의사였던 흡슨은 당대 서양 의학과 그 기초 정보로서의 해부학적 지식 등을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최한기는 흡슨의 번역어로 접한 서양 의학을 『신기 천험(身機踐驗)』이라는 저서에서 편집하고 의견을 부기한다. 또한 19세기 중엽의 당대의 최신 천문학설이었던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을 전하고 있는 허셜(John Herschel, 1792~1871)의 천문학이 담긴 중국어 번역서 『담천(談天)』을 접하고 이를 토대로 『성기 운화(星氣運化)』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한다. 이 책에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천문학 안에 담길 수 없는 서구 근대 과학의 개념과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18) 최한기의 서양 과학 수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현구, 『崔漢綺의 氣哲學과 西洋科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김선희, 「19세기 조선 학자의 자연철학에 관하여: 최한기의 기론설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6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6.

19) 崔漢綺, 『氣測體義』, 『明南樓隨錄』, “挽近氣之形。著顯於諸器試驗。氣之神。暢露於陶鑄運化。質之有形有神。非一人一時所唱始。乃宇內賢知所共明。體用咸備。萬事趁駐。”

기의 기 개념은 성리학의 전통적인 기 개념을 벗어나는 독특한 층위와 문제의식에서 발현된 개념이기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 최한기 자신이 이 이름을 자신의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보편학적 위상으로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다.²⁰⁾

최한기는 기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이름에 담는다. 본래 동아시아에서 기는 인간과 사물을 모두 포괄하는, 물질이자 생명성이자 역량으로 간주되었지만 최한기가 구상한 기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원리나 혹은 개체화된 물질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최한기는 가장 구체적인 단계의 물리적인 매커니즘에서 기의 실질을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기학의 기는 이기론의 기처럼 형이상학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연계의 운동과 변화에 대한 설명함을 넘어 인간의 인식과 판단 차원에도 기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통적으로 기는 관계이고 패턴이며 양상이자 신호였으나 최한기는 이 패턴을 최상위 수준까지 추상화한다. 정보철학에서 정보가 최상위에서 만사만물(萬事萬物)과 그 역동적 작용과 현상을 포괄하는 기준이라면 최한기의 체계에서 기가 그와 유사한 개념적 역할을 한다. 거칠지만 최한기의 이론적 기획을 정보철학과 관점과 비교하자면 기학은 인식과 수양의 주체로서 인격의 지위를 덜 강조하는 방식으로 인식의 주체-대상의 경계를 약화시켰으며 무엇보다 기를 여러 차원에서 계층화함으로써 일종의 추상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보인다. 무엇보다 최한기에게 기는 단순히 우주적 원리나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실증 가능한 구체적 대상이었다. 세계는 기와 물의 상호소통 과정을 통해 운행한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물(物)이라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기라 하는데, 우주만물은 기로 시작하여 변화하여 물이 되고 물이 다시 변화하여 기가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대체로 물은 생성되거나 없어질 때 그 기질(氣質)은 소멸하지 않으나, 다

20) 보편학으로서의 기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선희, 「최한기를 읽기 위한 제언: 근대성과 과학의 관점에서」, 『철학사상』 52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4.

만 눈으로 기를 볼 수 없고 물질의 형태가 없어진 것만을 보고 완전히 없어졌다고 여길 뿐이다.²¹⁾

우주 전체를 운용하는 힘인 기를 바탕으로 인간의 층위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사회와 우주까지 하나로 연결시킨다. 최한기는 세계의 구조를 대기운화(大氣運化), 통민운화(統民運化), 일신운화(一身運化) 등 세 층위 또는 세 단계의 장으로 설명한다.²²⁾ 이때 대기운화의 영역은 기의 세계관을 토대로 한 우주론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기의 형질과 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학의 영역이며, 통민운화는 정치와 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일종의 사회공학적 영역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일신운화는 운화기로 관통되어 있는 인체와 인식 능력을 포괄하는 인간학적 영역이다. 최한기에게 세 차원의 운동과 변화 즉 ‘운화(運化)’는 결코 위계적이지 않으며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개방성을 가진다.

이 통합과 연결의 가장 큰 테두리를 최한기는 운화기(運化氣)라고 부른다. 운화기는 각 영역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핵심 원리이자 실질적인 힘이다. 최한기의 독특한 개념인 운화는 자생적 활력과 그로 인한 능동적 변화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기의 생명성과 운동성, 순환성과 변화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운화기는 1과 0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비트처럼 존재하지만 비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개별자들의 양태들을 포괄한다. 운화기는 운동하고 활동하는 기로서 이미 비트이면서 존재다. 이런 맥락에서 운화기의 존재와 작동은 그 자체로 정보이자 정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보 패턴들은 일종의 추상화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불릴 수 있다.

활동운화를 가지고 공부의 조리를 분석해 본다면 ‘활(活)’이란, 추측을 존양하는 것

21) 『身機踐驗』卷7, 「物質即氣質」, “世人以可見者爲物, 以不能見者爲氣, 孰知宇宙萬有 由氣而化成爲物, 由物而復化爲氣? 凡物成物毀, 曾不能滅其氣質, 但目力不及見氣, 但見物質之無形, 人自以爲完盡耳.”

22) 『入政』卷9, 「敷運化平宇內」

이고, '동(動)'이란, 날로 새로워지는 이치를 건강하게 따르는 것이고, '운(運)'이란, 돌고 도는 운동성을 헤아림이고, 화(化)란, 조화롭고 원만하게 변통하는 것이니, 오직 이렇게 공부한 활동운화만이 한 몸에 본디 있는 활동운화를 통하여 대기의 활동운화를 받들어 자연과 인간이 한 곳에서 만나고 사물이 하나로 통하게 된다.²³⁾

추상화의 수준은 정보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정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플로리디는 LoA(the level of abstraction)이라는 방법을 제안한다. LoA란 한 존재 혹은 하나의 사태가 가진 다면적인 국면이나 속성을 하나의 기준에 의해 재배치, 재정렬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존재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나머지 국면들을 배열할 수도, 안전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정렬할 수도 있다. 정보는 가장 추상화된, 가장 포괄적인 LoA로서 이 안에 전통적인 윤리적 주체로서 인간 외에도 생물과 기계, 물질과 기술이 모두 포섭될 수 있다. 플로리디는 정보라는 개념을 매우 확장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분화되어 있던 각각의 경계를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개별자들을 공통적인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한기가 제안하는 운화의 단위들은 각각 하나의 추상화의 수준과 유사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력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중력장, 전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전기장이라고 부르듯 장(場)이란 특정한 질서 혹은 패턴에 의해 포괄되는 경계를 의미한다. 최한기가 설정한 인간 차원의 일신운화, 사회와 국가 차원의 통민 운화, 자연-우주적 차원의 대기운화는 일종의 수직적 모델이지만 힘과 권력에서 위계적이지 않으며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개방성을 가진다. 이 계들은 안정적이지만 개방적인 연결을 이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변화의 네트워크에 가깝다.

플로리디가 제안하는 LoA의 방법론은 설정된 목적에 따라 추상화의 층

23) 『氣學』卷2, 「以活動運化分哲於功夫條理」, “活乃存養推測, 動乃健順日新, 運乃度量周旋, 化乃變通和融. 惟此功夫之活動運化, 因一身固, 有之活動運化, 承大氣之活動運化. 天人一致, 事物一貫.”

위 역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층위들은 목적지향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²⁴⁾ 이런 구조라면 목적에 따라 일종의 위계를 가지면서도 그 위상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기적이고 맥락적인 상황에 따라 존재론적 구조가 재배치되거나 재정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추상화 수준에 참여하는 개체들은 상황과 계기에 따라 위계화되지만 위계가 고정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개체의 지위나 권리는 위계화되지 않을 수 있다. 최한기가 제안하는 운화기의 층위들은 마치 LoA처럼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별도로 추상화된 방법적 틀이다. 무엇보다 운화기는 가장 보편적인 차원부터 가장 세밀하고 구체적인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기를 관점, 맥락, 조건에 따라 새롭게 추상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한편 최한기의 기 해석이 다른 유학자와 다른 점은 그가 기를 계량화하거나 계수화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최한기의 체계에서 기는 형질을 가지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운화’한다. 운화기란 운동하고 변화하는 기의 본질이자 양상을 가리키는 최한기의 용어다. 이 운화의 기는 다른 말로 신기(神氣)라고 한다. 최한기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신기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다. 신기란 주로 기의 가장 정미한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었지만 최한기에게서 신기는 개체에 내재된 운화하는 기의 양태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

신기는 단순히 인간의 인식 주체, 일반적으로 mind나 mental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의 소통성이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최한기에게 신기는 인간을 특화시키는 종차의 구별점이 아니라 모든 지각있는 존재가 공유하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기는 언제나 계기적으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있더라도 동물에게도 신기가 있다. 다시 말해 신기는 한 개인의 영혼-심이 아니라 기의 투명성이 잠시 인간 안에 계류하면서 인식 활동을 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최한기는 신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을 ‘추측(推測)’이라

24) L. Floridi,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33.

부른다. 이때 추측은 우리의 일상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연역적 추론과 경험적 헤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리는 하나’이더라도 천리가 유행하는 것을 ‘유행의 리’라 하고, 과거 어느 날 견문(見聞)하고 하나하나 살피는(閱歷) 것을 미루어 바야흐로 다가올 사물의 처리를 헤아리는 것을 ‘추측의 리’라고 하니, 사람이 사물을 추측하는 데 천리에 어긋남이 없기는 어렵고 천리에 어긋남이 있기는 쉽다. 그 어긋나고 어긋나지 않는 이유를 추구해 보면 이것은 오직 미륵이 마땅했느냐 마땅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미륵의 마땅하고 마땅치 않은 것을 강구해 보면, 오직 헤아림의 양이나 정도에 달려 있으니, 인심의 추측의 리로 하여금 천도 유행의 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대한다.²⁵⁾

추측의 주체는 신기(神氣)로, 추측은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고 계측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추측은 인식 주관에 의해 포착된 외부의 객관적 정보라는 의미로 한정되지 않는다. 신기는 한 개인에게서 작동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천지운화에 통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일신(一身)에 국한된 기를 가지고 밖으로 천지운화의 기에 통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에 관해 하루 이틀 두루 살펴가고 1년, 2년 점차 증험하여 쌓으면 스스로 앞을 미루어 뒤를 헤아리고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헤아릴 수 있으니 이 또한 조리로서 이것을 인심추측의 리라 한다.²⁶⁾

주체-자아가 경계면이 분명한 안과 밖을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인간과 외부 환경 사이에 윤곽은 희미해졌고 경계면은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경험,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신체 역시 고유한 단위로 변별되지 않고 윤곽은 희미해져서 미분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패턴으로 유동하고 있다.

25) 『氣測體義』 「推測錄」 卷3, 「推情測性」 「心性理各有分」, “理是一也, 而天理流行者曰流行之理, 推前日之見聞閱歷, 測方來之處事物者曰推測之理, 則人於推測事物, 無違於天理難, 有違於天理易. 究其違與不違之故, 惟在推之宜不宜也, 究其推之宜不宜, 惟在測之量度, 期使人心推測之理, 無違於天道流行之理也.”

26) 최한기, 손명옥 역, 『기학』, 통나무, 2008, 65쪽.

이 패턴 역시 하나의 정보일 수 있다. “세상의 범위와 배포를 통찰해 보면, 원근에 가득한 인물(人物)의 생식사멸(生息死滅)은 다 대기운화에 따라 천변만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미세한 사물이라도 이 기화(氣化)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²⁷⁾고 말할 때 결국 이 세계는 기의 패턴으로서 정보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기의 패턴을 정보로 보고 이를 최한기 철학의 체계로 확대할 경우 기존의 유학과 달리 최한기 철학에서는 인간 행위자가 덜 강조되고 만물의 패턴들과 수평적 차원에서의 연결성과 소통성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기는 인간에게 고유한 변별적 능력이 아니라 존재 전체에 공통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본질이면서 사건이자 현상이자 지향성이기 때문이다.

V. 정보 윤리와 기학의 제안

철학 이론으로서의 ‘정보’는 “탈인간중심주의의 관계론적 사고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²⁸⁾하기 위한 문이자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듯 ICT는 해석을 기다리는 해석 지평의 객관적 존재자이거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인식과 관계, 구조와 양상을 모두 바꾸는 강력한 존재론적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플로리디는 ‘재존재화’라고 부른다.²⁹⁾ 이 재존재화는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성격은 물론 그에 따른 윤리적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철학에서 파생된 정보 윤리는 도덕적 의지나 이성적 판단 능력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전통적인 윤리학과는 다른 윤리학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게 요구되는 충족의 기준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더 많은 존재와 현상을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⁰⁾

27) 『人政』卷9, 「教人門」 「敷運化平字內」, “統察宇內範圍排佈, 人物彌滿, 生息起滅, 莫不因大氣運化而千變萬化. 雖微細事物, 未有捨此氣化而作成者.”

28) 목광수, 『루치아노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 컴북스캠퍼스, 2023, xiii쪽.

29) L. Floridi (2014), 앞의 책, p.5.

따라서 정보 윤리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행위자의 구성 요건도 달라진다. 이성에 입각해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없는 동물이나 자율 자동차와 같은 인공적인 존재자를 배제해왔던 전통적인 윤리와 달리 정보 윤리는 정보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도덕적 행위자로 통합할 수 있다.³¹⁾ 플로리디는 정보의 관점에서 이 도덕적 행위자들을 정보 유기체로 간주하고 새롭게 명명한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상호 연결된 정보유기체(information organism)로서 인포그(inforg)라고 부르고 이러한 정보 존재자가 다른 정보 존재자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 환경 전체를 생물권에 빚대어 정보권 즉 인포스피어(inforsphere)라고 부른다. 플로리디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측면에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자라기보다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 즉 인포그(inforg)로서,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 즉 인포스피어(inforsphere)를 공유한다. 인포스피어는 모든 정보 처리 과정들, 서비스들, 존재자들로 형성된 정보적 환경으로서, 그 안에서 정보 행위자들 뿐 아니라 그것들의 속성, 상호작용, 상호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³²⁾ 정리하자면 인포스피어는 “정보 처리 과정, 서비스, 존재자를 망라하는 정보 환경”³³⁾을 가리키는 조어이다.

자신과 타자의 역동적 관계가 형성되는 장이자 단위로 정보로 상호작용하는 정보 존재자들이 공존하는 장으로서 인포스피어는 물리적 현상 세계와 디지털적 가상 세계를 포괄적으로 묶는 개념이다. 인포스피어의 특징은 생명과 인공적 기술 존재자들을 차등없이 포괄한다는 점이다. 인포스피어에서 인포그 정보 존재자는 인간과 비인간을 차등화하지 않는 모든 접속된, 접속될 존재들이다. 인포그들이 역동적으로 관계맺는 인포스피어라는 개념은 사실상 고도로 발전된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한 디지털적 환

30) 신상규, 「자율기술과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 『철학논집』 45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6, 291쪽.

31) 위의 논문, 291쪽.

32) 루치아노 플로리디, 석기용 역, 『정보철학 입문』, 필로소픽, 2022, 24쪽.

33) 목광수, 앞의 책, 17쪽.

경에 토대를 둔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를 인포스피어로 규정하고 내부의 존재자들을 정보 존재자로 간주하는 방식은 신체와 정신의 이분법을 넘어 인간이 타자들과 그 실천들과 속성들과 속성들의 관계까지 상호 연결된 정보 유기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간과 기계, 정신과 신체 등의 이분법이 해체된 인포스피어에서 인간은 특권을 가진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정보 존재자와 상호 연결된 정보 존재자 중 하나다. 이 세계를 정보에 연관된 존재·작용·현상의 총체인 인포스피어로 본다는 것은 생명을 생명이 아닌 다른 단위들과 통합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만약 이런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기로 세계를 설명하려던 동아시아 전통을 하나의 참조점으로 도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인지·물질·생명을 기라는 동일한 단위로 해명하고자 했으며 이 모든 존재와 과정과 인식과 현상에 관해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간에게 특권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기는 구체적인 개별자를 이루는 질료이면서 별의 움직임이나 계절의 순환에도 적용되며 무엇보다 생명의 원리이자 심지어 감정에도 관련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최한기가 제안하는 기학에서도 유사하다.

천지를 꼭 채우고 물체에 무뎠어 있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나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것이 어느 것이나 기 아닌 것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천지의 기만이 있고 내가 처음 생길 때 비로소 형체의 기가 생기며 내가 죽은 뒤에는 다시 천지의 기가 된다. 천지의 기는 광대하고 영원히 존재하며 형체의 기는 국소적이고 잠시 머물다 없어진다.³⁴⁾

기는 모든 존재의 조건이자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조건으로서, 인간은 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산출하지도, 완전히

34) 『神氣通』 卷1, 「天人之氣」, “充塞天地, 瀆洽物體, 而聚而散者, 不聚不散者, 莫非氣也。我生之前, 惟有天地之氣, 我生之始, 方有形體之氣, 我沒之後, 還是天地之氣。天地之氣, 大而長存, 形體之氣, 小而暫滅。”

통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적 세계관에서 인포스피어의 통합성과 인포그의 상호연결성은 이미 모든 존재자들의 본질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인포그들의 연결체인 인포스피어로 본다면 확실히 인식 주체의 존재론적 특권은 약화되고 인식 역시 정보와 관련된 매체와 현상들 안으로 수렴되어 둔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환은 동시에 세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소재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로 연결된다. 정보철학은 반드시 정보 윤리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ICT 기술을 통해 인지가 분산될 수 있고 신체가 확장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은 빅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추론에 맡겨지고 도덕적 판단의 토대인 경험은 그 방식과 내용이 분산되면서 중심점이 사라지며 기억 역시 자아가 형성되고 작동하게 하는 기저로서의 역할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을 포함한 개별자들이 도덕적 선택을 하거나 혹은 악행을 피해야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 기술로 인한 탈신체화는 규정된 도덕적 코드를 적용하는 기계적 통계 매커니즘의 작동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표준화하고 규범화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신경망 회로를 통해 무한히 반복되며 점차 정교해지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행위의 준거로 행위자/피동자들의 윤리를 결정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상품의 조작 설명서와 사용자 매뉴얼이 인류의 새로운 윤리의 교과서가 될 것인가?

철학적 대상이자 주제이자 관점이자 이론으로서의 정보는 다시 말해 정보철학은 아마도 정보 패턴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론적 조명을 비추고 동시에 이 전체와 세부와 각각의 추상화 수준들을 윤리적으로 네트워킹하는 지적 실천을 의미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철학은 정보라는 개념을 근저에 배치함으로써 밀도를 낮추고 그 위에서 생명과 기술,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계, 주체와 객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도는 자연히 윤리적으로도 새로운 제안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윤리학이 행위자로서 인간의 조건과 능력과 그에 따른 책무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면 정보는 엄밀히 말해 대상으로서의 정보라는 개념으로는 이를 생산-수용-배치-활용-재생산 등을 수행하는 행위자 차원이, 암묵적으로라도 인간에게 초점화되지 않는다. 식당에서 일하는 서빙 로봇도 전원이 켜져 있는 한 외부 정보를 수용하고 분리하면서 행위를 창출하고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조차 정보를 통해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차이들이 정보권 인포스피어에 선하게 작용하는가 악하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윤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플로리디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뉴턴적 체계에서처럼 독립적이며 고유한 실재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 환경 즉 인포스피어에 착근된(embedded) 정보적으로 체화된 유기체(인포그)이다. 우리는 여러 국면에서 이 인포스피어를 우리와 유사한 자연적 행위자 및 인공적인 행위자와 공유한다.”³⁵⁾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비인간-인공 존재와 그 활동이 정보 유기체의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되어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인간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무화시키지 않고도 책임의 강도를 주체성과 권리의 양으로 환원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적인 것을 특권화하지 않으면서 이미 인간 세계에 도입된 수많은 인공적인 것과 혼종적인 것들의 세계 내에서의 작용과 상호 영향을 포괄하려는 보편적 틀과 축을 수립하는 것이다. 플로리디는 정보 윤리의 범위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정보 윤리에서 윤리적 답론은 정보적으로 이해된 모든 존재자에 관심을 둔다. 즉, 단지 모든 인간 그리고 그런 인간의 문명, 행복, 사회적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단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그것들 특유의 자연적 생명만이 아니라, 그림과 책에서부터 별과 돌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 미래 세대처럼 앞으로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하게 될 모든 것, 우리의 조상이나 오래된 문명들처럼 과거에 존재했지만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정보 윤리는 공평하고 보편적이다.³⁶⁾

35) L. Floridi(2013), 앞의 책, p.14.

정보철학의 윤리가 공평하고 보편적이라면 인간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를 공평하게 윤리적 차원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기의 세계관에서 낯설지 않다. 기의 세계는 그 자체로 정보 패턴으로 가득 찬 인포스피어적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이 안에서 개체들은 같은 수준의 다른 개체나 이용가능한 타자뿐 아니라 그 속성과 관계들에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체계는 세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행위자가 중심이 되기 어렵다. 관계는 전방위로 확장되어 있다. 이미 기의 세계가 패턴화된 정보의 세계라면 기로 이루어진 세계 전체가 인포스피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조건에서 최한기 역시 새로운 윤리적 제안을 한다. 우선 최한기에게 인간의 인식 능력은 특권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인식 능력에 해당하는 신기는 결코 인간에게만 부여된 기독교 신학의 영혼 같은 능력이 아니다.

천하의 모든 개개의 사물은 기와 질이 서로 합하여 생긴 것이다... 기는 하나이지만 사람에게 풍부되면 사람의 신기가 되고, 사물에 풍부되면 사물의 신기가 된다. 사람과 사물의 신기가 같지 않은 까닭은 질(質)에 있지 기에 있지 않다.³⁷⁾

이런 구도에서는 특권화된 인간 주체를 명시적으로 내세우기 어렵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인식하는 존재로서 세계에 대한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한기의 기학 역시 일종의 거시 윤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한기는 삼층의 운화를 설정하면서 개별 국민들을 통섭하는 거시적 구조를 설명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최한기가 설정한 개인, 사회, 우주 즉 일신 운화, 통민운화, 대기운화의 삼층 구조는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위상을 부여받은 개체라는 일종의 위계적 구도를 보이지만 이 위계적 구도는 그 자체로 추상화의 수준일 뿐 가치의 위계는 아니다.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구

36) L. Floridi(2002), 앞의 책, p.113.

37) 『神氣通』卷1, 「體通」, “天下萬殊, 在氣與質相合.....氣是一也, 而賦於人, 則自然爲人之神氣, 賦於物, 則自然爲物之神氣, 人物之神氣不同, 在質而不在氣.”

도는 연결성과 책임의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나의 층위가 다른 층위에 비해 더 가치있거나 중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의 문화 즉 세 단위의 운동 변화는 유동성과 운동성과 관계성을 보여주는 틀이며 이 안에서 기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들은 상호적인 책임을 진다.

모든 것은 물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겪은 주체의 추측을 통해 모종의 ‘사건’이자 ‘정보’로 온다. 최한기의 기학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사건의 존재론’이자 ‘정보의 동역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안에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하며 각각의 추상화 수준에 따라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윤리적 책임을 진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데에는 윤리와 도덕과 사업이 있는데, 그 일통의 준칙(準的)을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마음의 주장이 저마다 달라 여러 가지 장해(戕害)가 있게 되니, 이 또한 인도(人道)를 구명함에 널리 찾지 않음이 없고 선악의 행사가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어야 하는 까닭이다. 사람의 생활을 깊이 궁구하면 도리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오직 승순(承順)해야만 한다. 도(道)를 일신의 운화(運化)에서부터 교접의 운화와 통민(統民)의 운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기(大氣)의 운화를 본받는다면, 진퇴(進退)·지속(遲速), 위합(違合)·순역(順逆)이 자연 운화의 추이에 따라 제어(裁御)가 적절하게 되고, 형세(形勢)를 따라 잘 인도한다면 천백의 이론(異論)이 모두 소멸되어 일통의 운화로 천인(天人)이 일치될 것이니, 이를 일러 인정이라고 한다.³⁸⁾

최한기 철학에서 인정(仁政)은 주로 정치적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기계의 작동까지 포괄하는 문화기의 영역 안에서 정보의 패턴들을 따라 질서와 안정을 현실화해야 하는, 다시 말해 선을 지향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권에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연결은 엄밀히 말해 일종의 철학적 내러티브에 가깝

38) 『仁政』, 「凡例」, “人之生也, 有倫有道有事有業, 而不得其一統準的, 必有各心所主, 戕害多端, 是亦究明人道之無不搜覓, 善惡行事之無所不備也. 潛究人生, 不可違越, 惟當承順之道. 自一身運化, 至交接運化, 至統民運化, 皆效則于大氣運化進退遲速違合順逆, 自有運移之裁御正宜, 因勢而利導, 千百異論, 咸歸零落, 一統運化, 昭合天人, 是謂人政.”

다. 동양과 서양, 기술과 생명을 연결하는 방법적 제안으로서 철학적 내러티브는 개념의 합리적 사용과 정당화의 구조를 밝히는 언어적 검사의 기술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 경험이 어디에 어떻게 소용되어야 하는가, 경험을 공유하게 된 비인간 존재자들과 어떻게 관계맺을 것인가를 포괄하려는 시도이다.

VI. 나가며

추상적인 것이건 물리적인 것이건 변별적인 현상들은 언제나 존재했고 그 구조와 배열과 리듬과 생성소멸을 본래의 구조와 시간에서 뽑아내 ‘정보’로 구축하는 것은 감각 기관과 인지 능력을 가진 존재의 생존 방식이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인간에게만 허용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반드시 인간일 이유도 없고 생명체일 이유도 없어진 것일 뿐이다. 정보는 존재했던, 존재하는, 존재할 모든 것들에 개입하는, 외부 세계와 소통가능한 모든 개별자들이 대면하는 존재 방식이자 소통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조건이자 새로운 보편학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유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플로리디의 제안대로 메타 이론으로서 정보철학이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것과 정보가 적절하게 생성되고 처리되고 관리되며 사용되는 방법에 관해 규범적이며 입법적”³⁹⁾이라면 동아시아에도 보편학의 차원에서 정보에 규범성과 입법성을 제공하는 이론 체계를 구성해나가는 것도 불가능한 시도는 아닐 것이다. 더 나아가 정보철학이라는 현대 철학의 새로운 제안을 동아시아 사유와에 접맥하고 비교하는 일은 정보로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을 더 풍부하게 하고 이론의 정당화 조건을 더 넓은 문맥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참조점을 제공할 것이다.

39) L. Floridi(2002), 앞의 책, p.138.

사실 이러한 비교의 시도는 당연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출발과 지향이 다른 철학적 시도들을 동일한 궤도로 비교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철학도 외부의 참조점 없이 자기 내부의 이론적, 논리적 완결성만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외부로 확장할 수 없는 내적으로 닫힌 담론은 흥미로운 지적 게임일 수는 있지만 다른 학문적 시도의 자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 따라서 비교의 시도 자체는 철학이 확보해야 할 설득력과 확장성의 시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론과 개념의 비교를 통해 보다 유의미하고 유효한 담론을 제안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부적 연구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해당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내러티브가 문화적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면 다른 경험, 다른 세계관으로 독자적 삶의 문법을 구축해온 동아시아 역시 독립적이면서도 통합가능한 내러티브의 제공자(offerer)이자 구축자(constructor)이자 조사관(inspector)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철학의 담론적 제안을 전근대 동아시아의 철학적 전통에 대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거의 세계관과 언어가 인간의 인지를 신체성과 주변 세계와의 상관성에서 설명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인지의 존재론적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인간을 주체적 행위자로 상정하면서도 그 존재론적 비중이 다른 것을 압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보철학과 그 윤리에 비교될만한 독특한 구조적 네트워크와 논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동아시아 철학에서 현대 학술의 방법론인 수학적 계산과 명제적으로 통제된 사유 실험의 모델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오로지 그러한 방법 외에는 철학이 될 수 없다는 철학의 본질에 대한 서구 철학적 강박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통적인 동아시아 철학의 언어들에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축해 다른 문법-언어에 의한 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다.

메타 이론으로서의 가능성과 정당화 조건을 구성하는 데 서양에서도 현

대의 기술적 환경에서도 먼 타자의 사유를 참조하는 길은 이론적 정밀함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거친 유비와 성긴 연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정보철학의 관점에서든 기학의 관점에서든 우주와 인간과 세계뿐 아니라 속성과 관계까지 원리적으로 동일하며 토대 차원에서 공통적이다. 정보철학에서 이 세계에 참여하는 모든 존재자들이 정보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면 기의 철학에서 모든 존재자, 존재자의 속성과 그 속성들의 관계들까지 모두 동일한 원리와 표현을 공유한다. 신에 의해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인간은 주변 세계와 끝없이 소통하면서 그 소통 과정의 패턴을 유의미하게 기입하고 산출하며 연결된다.

최한기의 기학이 그러했듯 현재와 미래의 기술적 환경은 정보의 기입과 산출과 연결에서 점차 주체를 지워나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윤리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는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포착하기 어려운 책임을 가시화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장을 제안한다. 이 제안을 낫선 외부의 참조점 즉 동양철학 혹은 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작업은 결국 정보철학이 메타 이론으로서 성립하는 데 유의미한 방법론적 시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

『氣測體義』
『氣學』
『身機踐驗』
『人政』
『增補明南樓叢書』

2. 단행본

도나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검손한_목격자』, 갈무리, 2007.
루치아노 플로리디, 석기용 역, 『정보철학 입문』, 필로소픽, 2022.
마루야마 도시야끼, 박희준 역, 『氣란 무엇인가』, 정신세계사, 1989.
목광수, 『루치아노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 컴북스캠퍼스, 2023.
세자르 히달고, 박병철 역, 『정보의 진화』, 문학동네, 2018.
이정민 외, 『양자·정보·생명』, 한울아카데미, 2015.
이종란, 『기란 무엇인가』, 새문사, 2017.
이현구, 『崔漢綺의 氣哲學과 西洋 科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제레미 리프킨, 전영택·전병기 역,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2006.
최한기, 손병욱 역, 『기학』, 통나무, 2008.
Floridi, L.,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_____, *The Ethics of Inform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_____,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3. 논문

김선희, 「최한기를 읽기 위한 제언: 근대성과 과학의 관점에서」, 『철학사상』 52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4, 67~96쪽.
_____, 「19세기 조선 학자의 자연철학에 관하여: 최한기의 기론설을 중심으로」,

- 『철학사상』 60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6, 75~114쪽.
- 김영환·손영식, 「신유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언어철학적 분석: 기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7(1)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96, 273~303쪽.
- 김재희, 「시몽동의 정보철학: 사이버네틱스를 넘어서」, 『철학연구』 130권, 철학연구회, 189~220쪽.
- 송은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학 교육: 정보철학과 정보 윤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2)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9, 69~91쪽.
- 신상규, 「자율기술과 플로리디의 정보 윤리」, 『철학논집』 45권,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6, 269~296쪽.
- Floridi, L., “What is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Metaphilosophy* 33(1/2), 2002, pp.123~145.
- Shannon, C.E., Sloane N.J.A. and Wyner A.D. (ed.), “The Lattice Theory of Information” *Claude E.Shannon: Collected Papers*, 1993, Wiley-IEEE Press.

4. 인터넷 자료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dictionary/information_n?tab=meaning_and_use#416073, 2023년 8월 27일 접속)

Abstract

Revisited Choi Hangi's *Qi*-Study: From a Philosophy of Information Perspective

Kim, Seonhee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amine how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and the 'Ethics of Information' that have emerged in contemporary society can be explained and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philosophy, and what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ir loose connection. Changes in the current technological environment mean that the multilayered dimensions and elements that make up human life, and the conditions and modes of existence such as nature-life, society-culture, and technology-machine, are being recombined, reassembled, and contextualized around a different fulcrum than b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se new condi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pre-modern philosophy as an 'unfamiliar other'.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compare the worldview and implications of qi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philosophy and ethics through the 'qi study' of Choi Hangi, a 19th century Korean scholar who sought to validate the traditional East Asian concept of qi through the Western science of his time. Choi consistently applies the concept of qi to perception and experience, the principle and operation of machines, and the functioning of society and the universe, beyond the traditional semantic network of qi. In Choi's system, all things are equal information beings, exchanging patterns and interconnected by mutual responsibility. In this sense, Choi's Qi-Study can be seen as a kind of 'the ontology of events' and 'the dynamics of information'. In it, human beings must abandon egocentrism and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whole, and take ethical responsibility for

the phenomena they see at each level of abstraction.

Keywords: *qi*, Choi Hangi, *Qi*-Study, Singi, The Philosophy of Information, The Ethics of Information, Luciano Floridi, infosphere, inforg

논문 투고일: 2023년 09월 17일

심사 완료일: 2023년 10월 18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0월 19일